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10월 개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무대 모습.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운영위는 지난 16일과 17일 금남로 일대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현장에서 연극제를 홍보했다.

광주 역사·시민정신 담은 브랜드 공연 선보인다

'제22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 10월 개막 준비 본격화 희곡 공모 18일부터 접수... 주제공연 제작·교류 박차 "단순한 행사형 축제 탈피... '평화예술 플랫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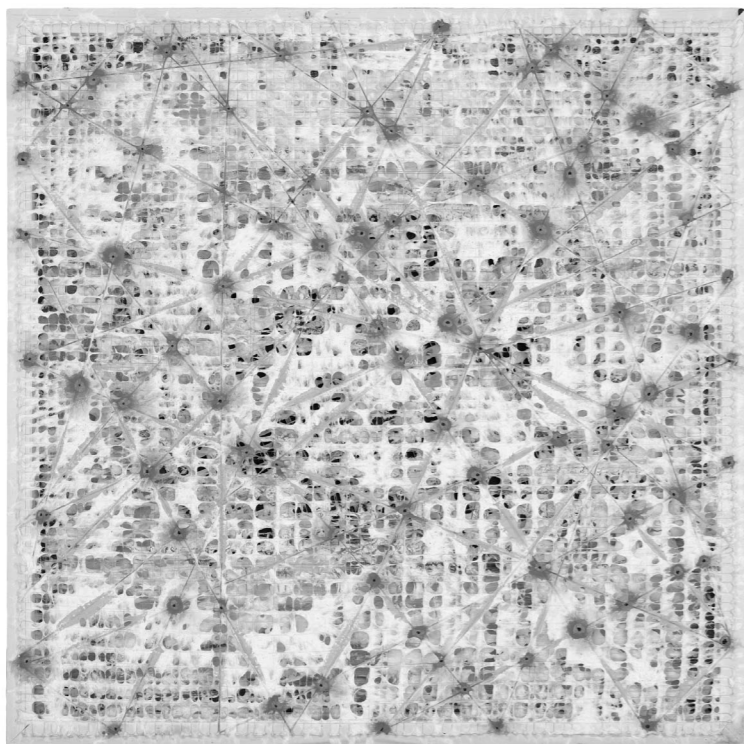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10월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8일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제22회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와 공동예술극장,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가 주최하고,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운영위원회, 광주평화재단이 주관하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역사성과 연극예술을 결합한 지역 대표 공연 예술 축제다. 연극을 매개로 전쟁과 폭력, 차별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하며 국내외 예술가와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연극제 역시 '평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운영위는 국내외 초청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광주만의 평

화예술 브랜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순 공연 중심의 축제를 넘어 시민참여형 국제 평화예술 플랫폼으로 도약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의 역사와 시민정신을 담은 브랜드 공연 개발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연 전후 관객과의 대화, 예술가 간 교류 프로그램, 평화 담론을 나누는 부대 행사 등을 통해 무대 안팎의 소통도 강화한다. 해외 초청 무대는 카자흐스탄과 일본 공연팀이 참여해 각국이 바라보는 평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선보인다. 또 대학(시민) 단막극제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공연팀이 참여해 경연 형태로 지역 청년 연극인들의 창작 무대 역할도 함께 수행할 전망이다. 운영위는 연극제 개막에 앞서 18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주제공연 희곡 공모

를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민주·인권·평화'로, 100분 내의 창작 희곡 1편을 선정한다. 타 공모 미수상작이어야 하고, 순수연극과 음악극, 움직임극, 융복합극 형식의 작품이면 된다. 신인과 기성 작가 구분 없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선정작에는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지원되며,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공식 주제공연으로 제작된다. 운영위는 단발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연출과 배우 해석으로 재공연되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향후 국내외 교류공연 및 쇼케이스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연극제는 시민들과의 접점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현

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연극제와 희곡 공모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평화의 숲 만들기, 평화 가본 만들기, 평화 약속 팔찌 만들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김하정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운영위원장 겸 총감독(유피씨어터·무담사공연예술창작소 대표)은 "광주는 오랫동안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도시"라며 "제22회를 맞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단순한 행사형 축제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세계와 연결되는 국제 평화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희곡 공모를 통해 광주국제평화연극제를 대표할 '광주평화극'을 발굴하고, 매년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지는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인드라NO.2'

10m 워터 페인팅 대작에 펼친 '마음의 심상'

서양화가 임희정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6월 7일까지 직선과 색동 화폭 구현 30여점 출품

"높이 걸어놓으니까 이렇게 쪽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관객들이 많이 받으시고, 그 안에 이 길 길게 펼쳐보면서 무슨 동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옹이 이렇게 승천한다', '옹의 뼈대같이 보인다' 등 여러 느낌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런 것 외에 작품 안에 꿈도 있고, 호랑이도 보인다고 합니다. 대충 보이는 형상들을 찾는 것 같아요."

'검이불루 화이불치'(儼而不亂 華而不侈)라는 타이틀로 초대 개인전을 열고 있는 서양화가 임희정씨가 12일 오후 전시장에서 만나 특정 작품을 설명하면서 들려준 대목이다. 타이틀인 '검이불루 화이불치'는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으며,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장엄하고 기품있는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색동 역시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 내포된 사유들 때문에 전시 타이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는 5년 동안 작가가 추구해왔던 작업이다. 무언가 표출하고 싶을 때 캔버스 위에 맨발로 올라가 물을 뿌리고 물 높이하듯 작업을 펼쳤다고 한다.

그의 대표명사격으로 보여주는 회화세계는 직선의 교차와 그리고 색동이다. 직선에서 누락된 곡선을 색동의 빛깔로 채워넣는 듯하다. 직선의 화면이기에 지금껏 단조로운 화면이 되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화폭에서 곡선을 찾기는 어렵지만 직선으로 곡선의 맛이 느껴지게 하는 듯하다. 그의 화폭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경향이 있다. 아마 색동 때문이 아닐까 싶다. 친숙한 색채에 작가만의 사유 그리고 개성적 해석이 결합된 탓이다. 조금 유식하게 접근하자면 그의 화면의 사유 출발지점은 괴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괴테의 규칙적이고 근원적인 자연현상을 통해 실험적인 시도는 물론, 형태심리학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의 화면은 긴 사각형을 위시로 변형된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과 타원형이 주요 형태들이다. 직



'깊은 연민'

선의 교차야말로 생명에너지가 흘러가는 길과 같은 사유의 지점들이다. 특히 화면에 등장한 사각형의 긴 띠는 우리 조상의 이미지인 한복 저고리의 웃고름을 시각화시켰다는 반응이고, 이 웃고름은 작가의 숙명적인 '길'로 해석되고 있다. 간단하고 깨끗하게 채색해 담백한 한국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멘트는 웃고름류의 작품과 결을 달리하는 작품이 전시장 한켠 벽을 타고 바닥에 펼쳐져 있다. 원래 작가가 웃고름류 작업과 함께 진행해왔는데 아직은 생소한 이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단박에는

안해 워터 페인팅으로 작업했다는 귀뜸이다.

그는 이 대작에 대해 "깊은 연민"으로 명제를 붙인 것은 어떤 심경적인 흐름상 맞을 뿐 아니라 컬러를 고를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게 '마음의 심상'이라고 보죠. 전체적으로 푸른 색 계통이 지배적이지만 좀 깊고 어두운 푸른색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역시 작가가 줄곧 추구해왔던 직선과 곡선, 선과 면의 관계를 탐구, 지난해 시간과 경험을 시각화하고 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굴곡진 선들은 무수한 선택과 고민이 교차하는 '삶의 길'을 상징하며, 그 속에 담긴 흔들림과 망설임의 시간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하는 흐름을 지속해오고 있다.

전시는 지난 8일 개막, 6월 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출품작은 2021년부터 꾸준히 작업해온 작품들로 400여 대작부터 소품까지 30여 점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시각적 조형 언어로 풀어낸 관계의 미학

'나주 방문의 해' 기념 김문정 작가 초대전...27일까지 천연염색박물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기념해 김문정 작가의 특별 초대 개인전을 오는 27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갖는다.

'있고, 비우고, 스미다'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작가의 작업은 인간과 세계를 독립된 개체가 아닌, 서로 연결되고 스며드는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에서 출발한다. 작가의 이런 사유가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맞닿아 있는 가운데 이를 시각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데 집중해 왔다는 설명이다.

작가의 핵심 매개체인 '실'은 관계를 잇는 선이자 인연의 흐름을 상징하며, '한지'는 스미고 겹치고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형상을 얻어가는 관계의 형상화다. 마대천이나 한지 위에 실과 한지축이 엉켜 불고 굳어지는 찰나의 흔적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피어나는 고귀한 관계라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인위적인 색을 덜어내고 한지 본연의 빛깔과 질감을 살려 '비움'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비워진 듯 보이는 고요한 여백은 결코 결핍이 아니며, 관객이 머물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평온한 사유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작가는 손끝의 감각에 의존해 실을 잇고 한지를 쌓아 올리는 수행적 과정을 통해 시간을 층층이 쌓아 올린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김문정 작가는 "모든 물성은 결국 관계의 섭리 속에 얽혀 있다"며, "작품이 우리 삶의 복잡한 관계망을 환기하고, 팽팽함과 느슨함 사이에 공존하는 각자의 자리와 거리를 다시금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정 작가는 성신여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실력과 중견 예술가다. 독일 피나코테크 미술관 룩셈부르크 예술상(2024)을 수상했으며, 최근 저서 '불교와 미술'(2026)을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MOON 채색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나주=조함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